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설 주역 3인

“광주정신 세계화 중요한 계기될 것”

최동석 광주시의사회장



“33년이 지난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광주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광주진료소’는 광주정신을 새롭게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진료소 개설 추진위원장 최동석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2일 “민주주의 성지이자 인권도시 광주의 정신을 이변 계기를 통해 전국화뿐 아니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 진료소 추진에 지역 의료계 뿐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기공식과 현지 의료 봉사활동에 참석한 최 회장은 “진료소가 준공되면 광주지역 의료계는 진료봉사, 교육계는 교육봉사로, 시민들은 해외자원봉사

로, 경제계는 경제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민·관·경제계의 참여도 호소했다.

최 회장은 향후 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현지의 의사와 간호사를 상주시켜 상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중증병원 등 지역 의료인들이 함께 월 1회 진료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얀마와 필리핀 등에 광주진료소 2, 3호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 첫 출발... 이주여성 소통 창구”

정승욱 (사)희망나무 대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건립은 나눔의 첫 출발이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승욱 (사)희망나무 대표는 2일 “광주 진료소 개설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류물풍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광주진료소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 실천과 함께 국내에 시집은 이주여성의 다양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세계 곳곳에 제 2, 3호의 광주진료소를 설립해 나눔을 바탕으로 한 광주 정신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다문화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광주진료소 개설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주여성 가족 및 친정마을 주민에게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한국과 광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시의회, 광주 의약 5단체, 광주일보 등의 도움이 광주 진료소 개설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단체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앞으로 도 꾸준한 도움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선진 의료 도움... 국가·지역간 교류”

타케오주 바티시 칸텅 주민국장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케오주 바티시 칸텅(Kan Doeng) 주민국장은 2일 “한국의 선진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칸텅 국장은 “벌써 광주의료진의 의뢰서 비스와 실력이 최고라는 소문이 지역 곳곳에 퍼졌다”면서 “지역주민의 광주진료소에 대한 기대도 커 오픈시기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도 역사적으로 공권력의 피해를 입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정부 폭력으로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캄보디아에 진료소를 직접 지원한다고 하니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아름과 나눔을 함께하는 광주 정신을 캄보디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칸텅 국장은 또 “진료소가 들어서서 는 곳은 교통요충지로, 캄보디아 전역에서 많은 환자(진료소)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진료소 개설을 기회로 한국, 특히 광주와 캄보디아의 우호친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광주 진료소가 두 국가간, 지역간, 교류장소로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프놈펜=최권일기자@



광주일보 김지을·이종행 ‘이달의 기자상’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심층 보도

광주일보 사회부 김지을(오른쪽)·이종행 기자가 지난 3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72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심층 보도로 ‘지역 취재보도부문상’을 수상했다.

김 기자 등은 지난 4월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공식 추모곡을 공모 형식으로 제정하겠다고 예산 4800만원을 책정한 사실을 최초로 확인,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알레르기?’(광주일보 4월 25일자 6면) 기사를 시작으로 파장 등을 연속 보도해 상을 받았다.

광주일보 보도 이후, 전국 신문과 방송은 기사와 논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치권, 5월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공식 기념곡 제정 촉구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단은 광주일보 기사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전국에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는 공동체 정신 살아있는 나눔의 도시”

박원순 서울시장 조선태 강연 “반값등록금은 의지의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31일 조선태 강연에서 “5·18의 도시 광주는 민주주의 투쟁을 넘어 공동체 정신이 있는 나눔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 “반값 등록금은 의지의 문제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조선태 대강당에서 ‘원순씨 청춘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학생은 물론 시민들이 대강당을 꽉 메운 가운데 열린 강연에서 박 시장은 “5·18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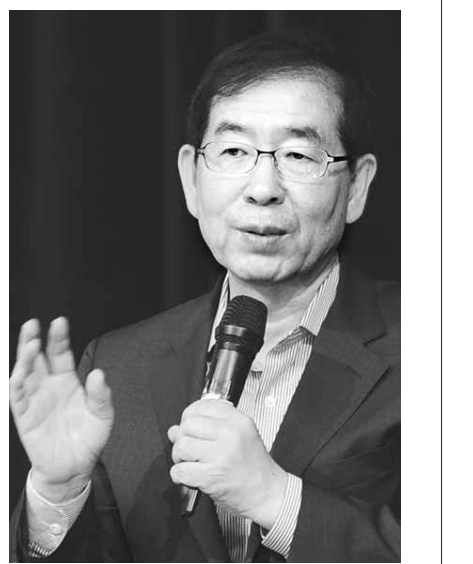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시기에, 광주는 탈린 가게 한 곳만이 질서를 지켰다. 외국의 경우 강도가 유행하는 데 강도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는 예향의 도시이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만큼 미래의 도시가 될 것이며,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변호사 시절 모시고 일했던 이돈명 총장님이 계실 때 조선태에 몇 차례 왔었고, 여러분의 선배인 이철규 열사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왔던 곳”이라며 조

선태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조선태는 역사의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민족 대학이라고 평가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반값 등록금 가능한 일이었다. 다른 곳에서 아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대선 때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됐다. 약속 지키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조선태 특강에 앞서 박 시장은 서울시 직원과 서울시의원 등 일행 30여명과 함께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해 “순천정원박람회장은 미국 센트럴파크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순천 도심형 형상



화한 순천호수정원을 한강에도 만들고 싶다”고 극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칸첸중가 등정 후 숨진 박남수 대장 6일 영결식

‘광주산악연맹장’ 4~6일 분향소 마련

세계 3위의 거봉인 칸첸중가(8,586m)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숨진 ‘2013 한국 칸첸중가 원정대’ 박남수(47·사진) 등반대장(광주일보 5월22일자 2면)의 영결식이 오는 6일 광주 북구 그린장례식장에서 ‘광주시 산악연맹장’으로 치러진다.

광주시산악연맹(회장 최경주)과 원정대에 따르면 박 대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칸첸

중가를 등정하고 하산하다 탈진에 의한 추락사고로 해발 7,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맹측은 지난달 24일 긴급구조대를 내팔에 현지에서 파견해 원정대원 및 세프파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해발 6,700m지점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몬순(monsoon)의 시작과 함께 기상악화로 강풍과 폭설이 반복되면서 캠프의 텐트가 날아가는 등 수습대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31일 0시경

철수를 결정하고 베이스캠프로 하산했다.

연맹과 원정대는 비록 박 대장의 유해수습에는 실패했지만 현지에 함께 간 유족과 협의해 4일 귀국하는 대로 그린장례식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6일 오전 9시 영결식을 열기로 했다.

불의의 사고로 칸첸중가에 영원히 잠든 고(故) 박남수 등반대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2005년 남파파르밧 투팔대장벽(8,125m), 2007년 에베레스트(8,848m)-로체(8,



516m), 2011년 마나슬루(8,163m) 등 히말라야 8,000급 거봉들을 잇따라 등반했다. 또 제83~84회 전국체육대회 ‘산악’ 부문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고산등반과 일반등산 분야에서 불굴의 산악정신으로 전위적인 활동을 펼쳐 온 산악인이다. 광주시산악연맹 상임이사와 산악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희남씨와 1남1녀가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3-53호

전남개발공사 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전남개발공사 사장 및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사장 1명, 비상임이사 5명(분야별 각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내용

사 장	-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택지개발 및 기업·혁신도시 개발사업 - 농어촌 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주요 관광지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유통 지원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등
비상임이사	- 공사 중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및 자문 수행 등

4. 응모분야

사 장 -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비상임이사 - 회계(세무), 경영, 법률, 관광, 건설 분야

5.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사 장	1.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예정직위 직무분야의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3급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기업(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설립)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예정직위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기업(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설립) 또는 준정부기관의 1급이상 직위로 예정직위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4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예정직위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선임 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비상임이사	- 지원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

6.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사 장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겸비자
비상임이사	- 경영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 비전제시 능력 겸비자

7. 임용계약 및 보수

사 장	- 계약기간 : 3년(성과평가 후 1년 단위 연장가능) - 연봉은 안전행정부의 기준 및 공사 보수기준에 의거 임용대상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비상임이사	- 계약기간 : 3년 -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3. 06. 03(월) ~ 2013. 06. 18(화)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공휴일은 제외,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다. 접 수 처 :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팀
- 라. 제출서류(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에서 다운)
 - 지원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 ※ 직무수행계획서는 공사홈페이지(http://www.jndc.co.kr) 「전남개발공사사장 및 비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을 참조하여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5매 이내로 기술하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등 사본 각 1부(보유자)

9.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가. 심사절차
 - 사장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비상임이사 : 1차심사(서류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나. 1차심사 : 서류심사(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다. 2차심사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심사에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나.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 별도 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팀(061-280-0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3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